

잼버리 성공 개최 위해 남은기간 '전력'

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도 협력과제 최종보고회… 행정부지사 주재로 5개 분야· 24개 협력과제 추진상황 최종점검

전북도가 대회 12일을 앞둔 2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키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실국별 협력과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설, 관광, 인전, 전시·홍보, 대회 운영 5개분야 24개 과제에 대한 실국별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 했다.

도 협력과제 추진상황은 먼저, 시설분야 종 기관시설 설치공사는 상·하수도 5km, 임시하수처리장 3개소, 주차장 3개소와 당길터널 57동 등으로 지난 5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으며, 대집회장 조성은 지난 5월 무대기반 및 전디, 수목재치 등을 완료하고 현재 주관방송사(KBS)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 리더선수단은 지난 6월 실내·외 견적물 공시를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며, 행사기간에는 조직위에서 잼버리 병원과 운영본부로 활용된다. 조직위 운영활동장은 기본시설을 완공했고 참가자들의 영의 수상과정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 관광분야 협력과제는 시전·시후 관광프로그램,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으로 시전·시후 관광은 17개국 7,726명이 신청했고, 시전관광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후관광은 8월 12부터 8월 10일까지 관광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은 29개국 1,000명(시전 520, 시후 480)이 도내 3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시전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서 마을별 특색있는 농촌문화를 체험할 예정으로 마을에서는 외국인 손님맞이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도는 인천한 잼버리 행사를 위해 테라 및 오전판교대학 김영현 예방 및 대응, 소방안전대책,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도가 대회 12일을 앞둔 2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키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실국별 협력과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사 종료 시 까지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25례에 걸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대중언어판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 적절성을 점검했다.

코로나9 김영현에 대응에서는 영지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군 방역대책상황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 김영현 발생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재 및 응급환자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으로는 1일 소방안전 123명, 구급차 등 경비 51대를 동원해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24시간 잼버리 소방서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행사가 개최되는 여름철 특성상 식음료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식품료오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시전점검과 현장점검, 식중독원 인조사본부와 식약처 식중독 신속감시망을 운영해 민밀의 식음료 안전사고 대

응할 예정이다.

이어 전시·홍보 분야로 자방언론 최재 활동 지원, 전북도 홍보관 시군 홍보관 시군 농특산물을 판매장 운영한다.

자방언론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 태양광실 증명기연구동에 프레스센터를 운영해 행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현장 취재를 지원한다.

참가자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도와 시군의 주요 정책 및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도·시군 홍보관을 운영하며, 잼버리 멀티지역에 도 9개 부스·시·군 14개 부스를 마련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4개 시군 23개 업체가 참여해 전시·홍보·임시점검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판매·홍보해 국내·외 참가자 및 방문객들에게 도내 우수한 시군 농특산물을 소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회 운영분야로 영의교정활동(지역연계) 지원, 참가자 및 관광객 수송 지원, 도내 주요지역 환경정비, 의료체계 구축 지원, 도내 우수 문화공연을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가 대회 12일을 앞둔 2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키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실국별 협력과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직위 영의교정활동 중 지역연계 30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200여명(1일 426명)의 지원봉사자를 배치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령·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 및 관광객 수송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잼버리장 운행노선·면경(잼버리장 임시정차) 및 임시정류장 운영(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앞) 대중교통(부안 농어촌버스) 증진으로 잼버리장 이용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참가자들의 시군 영의교정 활동 방문 시 깨끗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잼버리 행사 전·후에 집중해서 손님맞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 정회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쓰레기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수거 및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잠버리 의료체계 지원을 위해서 의료분야 등을 대상으로 지원봉사자 모집을 요청했으며, 조직위에서는 현재 필요인력 139명 대비 17명을 확보(128%) 해 의료시설별로 인력 배치 중에 있다.

그밖에 잠버리 참가자 및 비참가자를 대상으로 잠버리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폐막식 등 잠버리 주요행사를 리브로드로 송출할 예정이다.

또, 도내 우수 문화공연 지원으로 행사 기간 중 잠버리 멀티무대, 스클럽 하브 버스킹 스팟에서 퓨전국악, 비보잉, 태권도 등 총 16회의 전북의 우수한 문화예술 공연을 친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17년 8월 행사 유치를 시작으로 6년여간 도와 조직위·정부 각부처, 한국스키우드 연맹이 한 몸이 되어 행사 준비를 잘해왔다"며,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그 동안 충분히 온 도 치원의 협력과제가 미지면까지 빌붙없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 선정

군산·익산·진안·부안 캠퍼스… 평생 교육 질적 성장 도모

전북도가 전북도 평생교육정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시민대학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지역 캠퍼스인 군산시, 익산시, 진안군, 부안군 4개 자치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참가자 및 관광객 수송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잼버리장 운행노선·면경(잼버리장 임시정차) 및 임시정류장 운영(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앞) 대중교통(부안 농어촌버스) 증진으로 잼버리장 이용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 캠퍼스는 컨소시엄 대학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도내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진흥원, 시군, 대학이 협업해 자자체와 고등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은 고통교정과 특화교정으로 운영되며, 고통교정은 필수교정으로, 교육내용은 시민교육, 지역학(전북학)으로 구성된다. 이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강사들은 본부캠퍼스에서 지역캠퍼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화교정은 시군과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김재훈 기자



특별 재난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20일부터 익산시 망성면 200세대 무상점검·수리 진행

전북도는 7월 침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가전제품의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해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익산시의 요청에 따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가전제품 수리 지원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고 20일부터 지원된다.

이에 20일부터 22일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의 약 200세대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가 진행된다.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적극 협력해 수리 통합 부스를 운영하고 무상 수리 대상을 적극 발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리 통합 부스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기호호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 학호마을 축사 매입… 새만금 수질·악취 개선 기대

170억 원 투입·10월까지 돼지축사 7만 8000㎡ 매입 마무리 구상

전북도는 올 10월까지 익산 학호마을의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 7월까지 익산 학호마을을 일원인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학호마을 24농가에서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사 7만 8,000㎡다.

사업비는 총 170억원이다. 이 중 도비는 51억원(전체 사업비의 30%), 나머지는 시비(익산)가 투입된다.

오는 2022년부터 익산 왕궁 면 일대 축산집합 지역의 기후변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새만금 수질

민생사업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국비로 축사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검의가 있었다.

하지만 학호마을은 한선인이 아닌 일반인 지역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져 지난해 김관영 지사는 전액 자방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계획을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년~2034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해 축사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전북도는 왕궁 정치농원 매입 사례와 같이 학호마을에 대해서도 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기축 시설수수 등 물건조사를 진행하고 매입 사업을 본격화했다.

학호마을 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왕궁 정치농원 협업 축사와 함께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이 균형적으로 제거돼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호남 고속도로변 광역 악취 문제의 원천한 해결이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익산시 등과 함께 매입 부지를 활용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과거 환경오염원이었던 공간을 생태복원 명소로 털어놓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전주교육대, 전북과학대, 원광대	
모집	군산대, 남원평생스피치웃음코칭과정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웃음코칭·리더쉽·면접	
①모집대상: 대학, 일반인 남녀 누구나 ②매주 1회 수업(주간, 야간)	
③등록방법: 전화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가능	
④전화: 063-285-6676, 010-7304-5665	
※7월~8월 과정은 우석대, 원광대에서 강의함	
※2학기 모집은 수시로 하며 9월 개강합니다.	
※개인지도: 면접, 연설, 웅변, 시낭송, 인사말 등 상담 환영	
김양옥 (사)한국스피치웃음코칭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직접 지도함.	
장수군 천천면 금강다슬기축제를 위한 제1회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금강의 상류 청정지역 장수군 천천에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 지역군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가요제에 참가를 기원합니다.	
①일시 : 2023년 8월 12일 (토) 오전 10시예선, 본선 오후 4시30분	
②장소 : 장수군 천천면 춘승길 11, 축제특설무대	
③주최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④주관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⑤참고 : 본 대회는 각 전국대회에서 대상(1등) 수상자는 제외함	
⑥접수 문의 : (063)231-6669, 010-7304-5665, 010-4658-8198	
⑦참가자는 일만원 경비 납부보증 (접수자는 안내함)	
전북회장 김양옥, 장수군지부장 김을만(장수군민) 올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